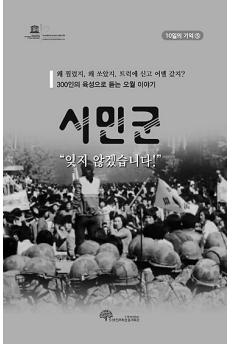


“시민군 300人 서사 한권에 담았죠”

광주출신 황광우 작가 ‘시민군’ 발간 5·18 항쟁 10일 날짜별 재구성 용접공 김여수 등 5인 이야기 인상적 21일 전일빌딩245서 책 헌정식

“300여 시민의 이야기를 후대에 물려주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5월 광주에 대한 빛깔을 해아 한다는 생각을 했지요. 이름 없는 민중의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는 나름의 부채의식을 40여 년 넘도록 갖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책으로 현장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황광우 작가


일대기를 영문으로 작성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집필했으며 2021년에는 ‘운상원 일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후 ‘운상원 평전’을 쓸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때 한 선배가 황 작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어이, 광우. 무명용사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게” 그 말이 오래도록 그의 뇌리에 남았다. 황 작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부끄러웠다”며 “평소 이름 없는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많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민중의 이야기를 쓸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사실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많은 책을 발견했지만 이번 책은 작가의 목소리가 가장 적게 들어갔다. 하지만 보람은 가장 컸다. 그의 가슴에 오월은 명예가 아니라 ‘명예’로 박혀 있는 듯했다. 300인의 구술을 재구성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이들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그는 5명의 이야기를 꺼냈다. “쇠망치를 만들어 시위에 참여한 용접공 김여

수, ‘데모 좀 한다고 사람을 죽어야’라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광주로 들어온 구두닦이 박내풍, 5월 20일 삼야의 신역전투를 이끈 여성 전옥주, 화순 산골의 순수한 청년 김현재, 서방의 주먹 김태찬이 그들입니다.” 황 작가가 따르면 이들 5명 가운데 김태찬만 생존해 있다. 시민군의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도움을 받았다. 그는 80년 당시 적잖은 고초를 당했다. 당시 그는 다른 대학생들처럼 광주 진실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만들어 뿌렸다. 계엄령이 확대되면서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수배령이 내렸다. 그의 친형 황지우 시인도 그때 성북경찰서에 불려 죽을 고생을 했다. “고문을 당하면 3일을 견디기 힘듭니다. 보름 동안 고문을 당했으니 형의 시에 나오듯이 산 것이 산 것이 아니었죠. 경찰서에서 나를 잡기 위해 형과 이간질을 하기도 했지요. 저 때문에 형이 유독 심한 고문을 당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책을 낸 황 작가는 “본업은 혁명 운동이었고 글쓰기는 부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몸 담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책을 낼 때마다 작가를 추적하지 못하게 이름을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땀뻑을 이고 가는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처음으로 본명을 썼다는 것이다. 그는 ‘시민군’을 모티브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대회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오즘 아이들이 영어를 잘 하니 영어 스피치 대회를 열면 좋겠다”는 말에서 ‘오월 세계화’의 방편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니 단호한 답이 돌아왔다. “오월은 패배하지 않았습다. 오월은 승리하였습니다. 삼야의 신역을 지킨 시민들이 있었기에, 도청의 최후를 지킨 시민군이 있었기에 오월은 세계사적 항쟁이 되었어요. 광주는 오월로 세계사의 광주가 되었습니다.” 한편 오는 21일 오후 4시 전일빌딩245에서 오월의 주역들에게 ‘시민군’을 나눠주는 헌정식이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공간과 연계된 조선 도자기의 가치

국립광주박물관, 내일 학술대회 조선의 백자는 고려 청자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자기다. 특히 조선 도자기는 누정, 원림 문화 속에서 선비들의 풍류와 함께했다. 누정산수화에는 다양한 도자기가 등장하는데, 도자기가 조선 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의 누정 등 공간과 연계된 도자기의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은 오는 20일(오후 1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조선의 공간과 도자기’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갖는다. 이번 학술대회는 누정문화와 함께 도자기 쓰임에 대한 새 주제를

제시하고 확장 견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애령 박물관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도자기가 사용되는 공간과 도자기의 문양들이 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도자기의 실제 사용을 살펴보기 위해 건축, 서화, 사우르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1부 ‘풍류 공간 속의 도자기’, 2부 ‘도자기 속의 풍류 공간’으로 진행된다. 먼저 1부는 ‘조선시대 누정 건물의 역사와 기능’(이강근, 서울시립대), ‘누정(樓亭)과 공간(空間)의 경계를 넘어서: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누정산수화(樓亭山水畵)의 상징과 기능’(박은순,



덕성여대), ‘남도 원림의 고고학적 조사와 출토 자기’(권혁주,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2부 발표에서는 ‘정화백 자산수문과 영조(英祖)의 만들어진 신화’(조규희, 서울대), ‘조선 후기 화취문 백자를 통해 본 문인취향’(김은경, 덕성여대), ‘조선 백자에 보이는 시문과 공간의 이해’(김현정, 국립광주박물관)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발표 후에는 고려대 방병선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조일형(한국학중앙연구원), 이수경(국립중앙박물관) 등 토론이 펼쳐진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깊어가는 가을 ‘피아노곡의 향연’

신수경·이종만·이후성 트리오의 밤...오늘밤 금호아트홀

베토벤, 글린카, 멘델스존…… 이들 세 음악가의 공통점은 ‘피아노 트리오곡’에 천착했다는 것. 광주에서 활동하는 신수경, 이종만, 이후성 세 음악가가 ‘피아노 트리오의 밤’을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다. 먼저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C단조’가 막을 연다. 베토벤은 데뷔 후 1816년까지 피아노곡 20여 개를 작곡했



이종만

신수경

이후성

음에도, 1816년 이후 장악한 ‘피아노 트리오’를 작품번호 1번으로 명명했다.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하일 글린카의 ‘비창 삼중주 D단조’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연주하는 곡이다. 글린카가 이탈리아에서 도니체티, 벨리니의 음악적 영향을 받아 창작한 작품이다. 악곡 전반에는 따뜻하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감돌지만 모순적이게도 ‘비극적(비창)’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글린카가 장뇌치료 등으로 고통스러운 시간(1832년)을 보냈던 것이 ‘비창’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멘델스존 작 ‘피아노 트리오 D마이너’를

들을 수 있다.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작품으로 소평 풍의 화려한 기교가 담겨있다. 피아노 연주는 서울대 음악대와 미국 일리노이 음악 석박사를 졸업한 신수경이 맡는다. 현재 전남대 예술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호남예술제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은 런던 퍼셀 음악학교를 졸업했으며 광주시향, 독일하젠시립극장 악장 등을 맡아 왔다. 첼리스트 이후성은 조선대 음악교과,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석사과정 등을 마쳤다. 현재 광주시향 첼로 부수석으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전석 초대. 금호아트홀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제4회 선정문학상에 하기정 시인

수상작 ‘나의 아름다운...’ 등 4편 작가상 수상엔 배세복 시인 선정



하기정 시인

배세복 시인

제4회 선정문학상 수상자로 하기정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나의 아름다운 캐릭터’와 4편이며 상금은 1000만원이다. 시 전문지 ‘상상인’과 선정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최근 심사회를 갖고 이 같이 수상자와 수상작을 결정했다. 선정문학상 심사를 맡은 오민석 평론가와 박형준 시인은 “하기정 시인의 작품들은 쓸데없는 난해성으로 가독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안이한 접근으로 시를 가벼이 만들지 않고, 수려하고 유창한 문장 위에 시작적인 것을 미끈하게 잘 띄우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하 시인은 2010년 영남일보 신춘문예 시로 등단했으며 시집 ‘밤의 귀 낮의 입술’, ‘고양이와 겹장’이 있다. 5·18문학상, 작가의는 작품상, 불꽃문학상, 시인뉴스포럼 시인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제1회 선정작가상 수상자로 2014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인 배세복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추녀는 치솟고’ 외 4편이며 상금은 500만원. 심사위원들은 “오즘 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리얼리티의 진실함과 독특한 구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빼어나게 형상화했다. 이야기와 이미지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풀어내는 서사시적 방식이 매력적”이라고 평했다. 고고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배 시인은 시집 ‘문드러진 담요’, ‘목화밭 목화밭’을 펴냈으며 문학동인 ‘Volume’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정문학상과 선정작가상 수상작과 수상소감, 심사평은 2024년 ‘상상인’ 봄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문학상 수상시집 ‘나의 아름다운 캐릭터’는 시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2일(오후 3시) 선정문학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문학상은 ‘상상인’과 선정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고 선정산업이 주최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든든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 자산규모 1조5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